

특별상 수상작 시비회 가을 수련법회

서울 노원구 상계9동 서용칠(68세)

단 풍

日光에 물들었다 천지가 滿山紅葉
단풍아 자랑마라 세월이 노을진다
오늘밤 푸른月光이 萬山에 파란낙엽 이룰리

여기는 46번 국도, 경춘선을 달리며 가다보면 남
이섬과 열산자로 갈리는 조종천을 만나게 된다. 왼
쪽으로 급하게 꺾으면서 북으로 내달리던 가평 험리
일광사에 당도하게 된다. 읍가를 회원들과 나선 수
련회는 10여 년째 거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시비회(施悲會)는 서울 동산불교대학을 1998년에
입학하여 2년간 공부하고 졸업한 12회 졸업생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수행과 자비 모임을으로 군중교구
에 등록된 여섯한 신행단체이다

그림과 보고 싶다는 사랑의 약속도 조그마한 의견
차이에 방파제 앞에서 사라지는 파도와 같고 굳은
언약의 우정도 하얗은 아비에 작아지는 것이 우리네
살림이다. 그러나 시비회의 도반은 한뜻으로 같이
가는 길이기에 길 없는 길도 함께하고 길 위에서 쉬
지 않으며 이 길이 끝나는 날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그네도 되어주고 친구도 되어
주고 연인도 되어주고 선지식도 되어주는 참으로 소
중한 인연의 끈을 쥐고 있는 것이다.

오늘밤 일광사(日光寺)에서 하룻밤을 보내기 위하
여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인연의 그물코를 청실 홍
실로 엮어 놓았는가. 또한 스님은 속세에서는 한때
도반으로 같이 공부한 인연이 있었다.

이번 수련법회 길에는 나의 내자도 함께 하기로
마음을 냈다. 뇌동맥 혈관 수술과 심장수술로 인해
15년 세월을 불편한 몸으로 생활했기에 남 앞에 서
는 것을 꺼려하고 더욱이 장거리 여행은 가족 나들
이 이외는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뜬꿈이 "어제 어디인가 훨
훨 가고 싶어 문을 나섰는데 막상 갈 데가 없어 우두
커니 서 있다가 방으로 다시 들어왔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좁혀림 마음을 밖으로 보이지 않
는 그는 시각장애 2급이요 뇌병변 4급으로 혼자서
의 나들이는 동네 밖을 벗어날 수 없는 일이다.

나의 아픔은 내 수행의 부족이요 내가 이렇듯 고통
을 받는 것은 나의 아픔으로 너와 나의 공업이
다. 지난 세월 아무리 아파도 짜증난내 내지 않았
고 아무리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늘 웃는 모습으
로 가족을 대하면서 희망과 꿈을 갖고 밝게 살아온
터였다.

그것이 고마워 나는 포교사가 되어 군법당에 10여
년째 포교를 하고 있으며 요즘은 국제포교사의 원을
세워 공부하느라 토, 일요일은 늘 집을 비우고 다녔
다. 수요일은 문화회에서 문화기행으로 혼자서만 쏘
다닌 것이다.

올 여름부터는 조계종 포교사단 사무국에서 오전
자원봉사로 컴퓨터관련 일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라
는 말 대신에 나는 자원봉사(自願佛事)라고 말하고

살다. 나는 혼자 집에서 지내는 내자의 외로움을 눈
치 채지 못한 못한 남편이었던 것이다.

집결지 양재역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하였다. 서울
에서야 해거름으로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구름도 바
라보고 강물구경도 하고 강변의 자갈들과 이야기하
며 당도하니 땅거미 지는 해질녘이었다.

파르스름하게 무명초를 다듬은 머리에 해맑은 소
년처럼 웃음 지으며 동구 밖까지 나와 스님이 반겨
주었다. 스님께서는 수행의 결과로 얼굴 모습과 성
품이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자기 얼굴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며 내
몸값은 내가 매기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정가표를
붙이는 것은 아닌듯하다. 가을걷이를 끝내지 않은
너른 텃밭에서 손수 일구어낸 농작물은 완전히 일
년을 살 수 있는 자급자족의 생활이었다.

저녁 공양 때는 내가 산사에 온 것인지 처갓집에
온 것인지 푸근한 것이 음식맛이 시골 큰 아주머니
의 손맛이었다. 동치미 국물은 시원한 것이 일품이
요 도토리묵은 그 어디에서든 비교가 안 되는 맛이
요 된장찌개는 능이여 한껏 내용과 맛을 자랑하였
다. 송농은 노르스름한 것이 처자를 들고 들기를
바른 옛 우리네 장판지 색깔이며 입안에서는 낙엽
태우는 구수한 맛이 감돌았다.

저녁예불 올리고 각자의 신행생활과 스님의 사시
는 모습을 들려줄 때는 친구이며 우정 어린 도반으
로 느껴졌다. 아무려나 풍광이 좋고 부처님 모시고
청정수행하며 외부와 단절된 삶이 오히려 부러웠다.

우리 도반들은 불도(佛道)의 길을 같이하면서 불
교만이 갖고 있는 서로의 속내를 묻지 않고 말하지
않고 굳이 알려지지 않으니 그저 알음알이로 지내
는 터이다. 해서, 이런 날이라야 자기의 생활이나
생각을 말하고 물으니 조금씩 숨통을 열고 사는 것
이다.

이야기꽃에서 잠시 벗어나 산사에서 깊은가
가을밤을 보려고 내자와 밖으로 나오니 싸늘하면서
도 상큼한 밤공기의 향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고 있
었다. 서울에서는 가로등, 보안등으로 인해 별을 볼
수 없는 별 볼 일없이 살아왔지만 그래도 이곳은 별
들이 제법 열려있어 가을별이 초롱초롱한 소녀의 눈
망울 같았다.

산사의 밤은 깊어가고 사하촌의 경정 개 짖는 소
리도 별빛에 반사되어 흩어지지만 잠은 오지 않고
살아온 지난날들이 별빛처럼 더욱더 명명(明滅)한
다. 보살들의 간넛방에도 아직 불이 꺼지지 않고 두
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이어지고 산사의 밤을 보내는
내자의 심정은 어떠할까 궁금하였다.

아마도 금생뿐 아니라 다음 생에도 우리 보살과
부부의 인연으로 산사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은 이
밤 지새우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언젠가 병실에서였다. 우리 다음 생에도 부부의
인연을 맺고 또 살자고 하였다. 그는 싫다고 거침없
이 일언지하에 끊는 것이었다. 의외의 답에 깜짝 놀
라 아니 내가 왜 싫은가? 나와 살아온 세월이 원망스



그림:문병성

깜깜한 밤중 중생들의 탐내는 마음·성내는 마음·어리석음 깨워
무명번뇌를 녹아내려 주는 목탁소리는 새벽 하늘가에 가득차

러운가 하고 다그쳐 물었다. 자기는 다음 생에는 남
자로 태어나 대학도 다니고 유학도 하고 금생에 못
배운 한을 풀고 연애도 멋지게 해보고 싶다는 것이
었다. 오히려 나에게 여자가 되어주면 한세상 살아
주마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로 인해 당신에게 너
무 많은 고생 시켜드려서 그 빚을 갚겠다는 것이다.
1993년 이른 봄 당신이 첫 수술을 받고 뇌암이 떨
어지지 않아 한 달 이상을 중환자실에 있을 때 나는
부처님께 나의 시신과 장기를 모두 내놓을 테니 우
리 보살 살려 달라 절규하였다. 수술 후유증으로 오
른쪽 눈을 실명했을 때는 내 마음도 몸도 갇감하였
다. 지금까지 그 후유증으로 나는 당신 목욕시켜주
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언제 내가 내색
하였는가. 차라리 한강 백사장에서 바늘을 쫓지! 나
역시 여자는 싫었다. 나는 빠져가지고 우리보살이
나와 짝을 안 해준다면 다음 생은 흠뻑으로 살만정
약연의 시절인연 맺지 않으리라 마음 다진 적이 있
었다.

우리는 스님을 흠뻑이라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목숨을 내어 줄 수 있는 친구로 다시 만나기로 합의
했다. 금생 보살과 함께한 40여년의 세월이 활동사
진처럼 연상 꼬리를 물고 일어나 잠을 이룰 수가 없
는 길어가는 산사의 가을밤이었다.
포르록 푹푹, 포르록 푹푹, 어디선가 들었던 듯한
아련한 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지고 이어지고는 다시
끊어진다. 어디서 들었던 소리인데 꿈인가 생시인가
이곳이 어디인가 아득한 기억 속을 더듬는 찰나 굉
음의 소리에 벌떡 일어나 시각을 보니 새벽 3시50분.
스님께서 도량석을 하고 있었다. 허둥지둥 우물가로
나가 눈곱을 떼고는 합장하고 스님의 뒤를 따르며
경내를 들었다.
미명의 캄캄한 밤중이지만 중생들 탐내는 마음,
중생들의 성내는 마음,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무명번뇌를 녹아내려 주는 목탁소리는 새벽 하늘가
에 가득히 차고 넘치고 있었다.
160cm에 55kg의 이 물건은 누구인가?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문는 말
에 나는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물
건 하찮은 미물 같으나! 신(身) 구(口) 의(意)가 마음
을 내면 능히 이 우주를 창조하기도하고 단박에 내
순안에 넣어 부서버릴 수도 있는 감히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불가사의(不可思議)의 힘이 있다.
상념에 젖어있을 때 천지가 너무 조용하여 보니
도량석은 끝나고 쇠북종소리 은은하게 들려 법당에
앉으니 천년의 미소 부처님이 나를 안심케 하여주고
있었다.
오나! 금생에 이루지 못한 꿈 다들 생애는 꼭이
뤄야지!
한편에서 정법과 자운우등이 나직이 찬불가를 부
르고 있었다. 음성공양으로 군법당에서 병사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인기 좋은 이들이 새벽법당을 가르는
소리에 나도 함께 불러보았다.
무슨 원이 이리 많아 내 눈에는 주르륵 눈물이 흐
르고 있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조기유학생 모집
초 6·중·고 1, 2, 3학년
(남경사범대학 부속실용학교)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20명 (내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5명 (평점3.5이상)	
박 사 과 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인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8년 1월 29일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亞東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 스 : 25-8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학림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006년 본과 합격자 명단

- 본과 합격자 -
- ▲강민정(경희대학원) ▲이거성(연세대) ▲한효정(단국대)
- ▲이정화(건국대) ▲서연호(한국항공대) ▲박병수(명지대)
- ▲박영민(명지대) ▲강성우(호남대) ▲이경환(배재대)
- ▲이종환(우석대) ▲김재문(경남대) ▲최중건(UCLA)
- ▲황진영(유성여고) ▲이창영(마산고) ▲황성현(대건고)
- ▲정재형(성문고) ▲박상준(구정고) ▲이상훈(성신고)
- ▲박민수(화수고) ▲이원영(동지고) ▲김민환(인항고)
- ▲박선규(반포고) ▲송미나(광주여고) ▲김민성(휘문고)
- ▲김준호(배문고) ▲김정우(현대고) ▲박은수(대덕고)

- 석사과정 합격자 -
- ▲신병룡(경희대 한의학과) ▲김병호(경희대 한의학과)
-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중(북경중의대 한의학과)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 광 대
한의대학
대전 대
한의대학
삼화불교
대학림

한국 총장 손혜인

